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주요 부문 타이틀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성현·유소연·렉시 톰슨·평산산(사진왼쪽부터)

LPGA 마지막 승부 펼친다

투어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17일 개막
박성현·유소연·평산산·렉시 톰슨 4파전 양상

2017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최종전만을 남겨 둔 가운데 주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마지막 결전이 벌어진다.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이 17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파 72·6566야드)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를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주요 타이틀의 주인이 정해진다.
신인왕을 확정된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4관왕을 씩씩이 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의 선수 부문 선두 유소연(27·메디힐)과 최저타수 부문 1위 렉시 톰슨(미국)이 타이틀 수성에 성공할지도 주목된다.
주요 부문 경쟁은 그야말로 접합경이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박성현과 유소연, 톰슨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이시안 스윙'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평산산(중국)이 대추경에 나서며 4파전이 됐다.
박성현이 최종전에서 넉넉한 타수

차로 우승할 경우 4관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세 선수 중 한 명이 우승하면 최악의 경우 박성현은 이미 손에 쥔 신인왕 타이틀에 만족해야 한다.
박성현이 세계랭킹 1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4관왕 달성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상금 선두인 박성현(228만2472달러)은 2위 유소연(196만4425달러)에 30만 달러 정도 앞서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투어 챔피언십은 일반 대회와 달리 우승 상금의 비율이 높아 우승자에게 62만5000 달러가 돌아간다.
3위 평산산(170만3326 달러), 4위 톰슨(169만605 달러)까지도 역전이 가능하다.
올해의 선수 부문은 더욱 치열하다. 유소연(162점), 평산산(159점), 박성현(157점), 톰슨(147점)까지 투어 챔피언십 우승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1~4위 모두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우승자에게 30점, 2위 12점, 3위 9점, 4위 7점, 5위 6점이 주어지고 이후 10위까지 1점씩 배점이 낮아진다.

박성현이 5위 이내에 들고 나머지 선수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리면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를 동시에 석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박성현으로서는 평균최저타 선수에게 주어지는 베이트로피를 손에 넣기가 가장 힘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69.259타)은 '블루 베이 LPGA'에서 4인타파에 그치며 톰슨(69.147타)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종전에서 우승하더라도 톰슨에 9타 이상 앞서야만 역전이 가능해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블루 베이 LPGA'를 마지막으로 레이스 투 CME 글로벌 포인트가 리셋됐다.
톰슨(5000점), 박성현(4750점), 평산산(4500점), 유소연(4250점)이 나란히 250점 차로 1~4위에 위치했다.
여기에 최종전 우승자에게 3500점, 2위 2450점, 3위 2250점, 4위 2000점, 5위 1750점, 6위 1600점, 7위 1250점, 8위 1000점 등 순위별로 차등해서 추가 점수가 주어진다.
성적에 따라 100만 달러 보너스의 주인공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박성현이 여러 약조전에서도 39년 만에 대업을 달성할는지, 아니면 사이 좋게 타이틀을 나눠가질지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투어 챔피언십으로 쏠리고 있다.

/뉴시스

이탈리아 국민들, 월드컵 출전 좌절에 '망연자실'

1958년 후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월드컵 출전이 좌절되면서 아주리 군단 팬들이 절망과 충격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AFP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주리 군단은 이날 스웨덴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경기를 마쳤다.
이에 이탈리아는 지난 1차전 스웨덴에 한 골을 허용하며 패했기 때문에

1, 2차전 합계 1무 1패로 밀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2006년 프랑스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축구 강국이란 이미지가 서서히 퇴색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이 아주리 군단이 빠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탈리아는 1980년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1984년, 1988년, 1992년, 2006년 4차례 우승했고 1970년과 1994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전 주요 축구경기에서 이탈리아의 출전 좌절된 경우는 1992년 유러피언 챔피언십 때였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는 경기 직후 "이탈리아 축구는 이제 정말 골목 속에 살아가게 됐다"라며 "국민은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 좌절을) 종말과 대재앙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저지·벨린저, MLB 만장일치 신인왕

20년 만에 메이저리그 사상 4번째 양대리그 동반 수상

올 시즌 메이저리그를 강타한 '슈퍼루키' 애런 저지(25·뉴욕 양키스)와 코드 벨린저(22·LA 다저스)가 만장일치로 양대 리그 신인왕의 주인공이 됐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는 14일(한국시간) '2017 메이저리그 올해의 신인왕' 수상자로 아메리칸리그 저지 내셔널리그에서는 벨린저를 선정 발표했다.
리그별로 저지와 벨린저를 포함해 3명씩의 후보가 있었지만 신인왕 수상자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
이들이 만장일치로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는지가 관심사였다.
저지와 벨린저는 30명의 투표단으로부터 1위표를 독식하며 차점자들을 큰 점수 차로 따돌렸다.
메이저리그 사상 4번째 양대리그 동반 만장일치 수상이다.
1997년 노마 가르시아파라(보스턴)와 스킷 롤렌(필라델피아) 이후 20년 만이다.
올 시즌 저지와 벨린저는 신인의 활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임팩트가 대단했다.
중고신인 저지는 15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4(542타수 154안타) 52홈런 114타점 128득점 127볼넷 OPS(출루율+장타율) 1.049의 엄청난 성적을 남겼다.
아메리칸리그 홈런 부문 1위, 득점 1위, 타점 2위, 볼넷 1위 등 공격 부문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코드 벨린저·뉴욕 양키스 애런 저지(사진왼쪽부터)

에서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며 실버슬러거를 수상했다.
전반기 엄청난 성적을 올리며 올스타에 선정된 저지는 홈런대첩에서도 압도적인 파워로 내로라하는 홈런 타자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특히 마크 맥과이어가 보유한 메이저리그 역대 신인 최다 홈런 기록(49홈런)을 넘어 신인 처음으로 50홈런 달성했다.
신인왕 후보로 거론하기 아까울 정도의 최우수선수(MVP)급 활약이다.
벨린저는 빅리그 무대를 처음 밟아

128안타) 39홈런 97타점 87득점 OPS 0.933을 기록했다.
저지와 함께 일찌감치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됐다.
내셔널리그 홈런 부문 2위에 오른 벨린저는 종전 마이크 피아지의 다저스 신인 최다 홈런 기록(35홈런)을 갈아 치운데 이어 내셔널리그 신인 최다 홈런(프랭크 로빈슨 외 1명·38홈런)도 새로 썼다.
양키스는 1996년 데릭 지터 이후 21년 만에 신인왕 수상자를 배출했다.
다저스는 지난 시즌 코리 시거 이후 2년 연속 최고의 루키를 탄생시켰다.

/뉴시스

조나탄·이재성·김민재 K리그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 3파전 돌입



조나탄(수원), 이재성(전북), 김민재(전북)가 2017 K리그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아디다스 팬(FAN)타스틱 플레이어' 3파전에 돌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13일 팬타스틱 1차 투표를 한 결과 최종

445표를 받은 전북의 이재성은 8득점 10도움으로 프로 데뷔 이래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북의 리그 우승을 도왔다.
올 시즌 전북의 수비를 책임진 김민재(29표)는 데뷔와 동시에 뛰어난 활약으로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 전까지 치르며 눈도장을 찍었다.
2차 투표를 거쳐 이들 3명 중 1명이 팬타스틱 플레이어상을 수상하게 된다.
2차 투표는 17일 오후 5시까지 K리그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뤄진다. 1인이 1선수에게 1회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는 20일 KEB하나은행 K리그 2017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